"유물로 남을 과거·현재·미래…삶 돌아보길"

'하정웅청년작가 초대전 빛 2019' 선정
이정기 작가, 다양한 장르 실험적 도전
시대 모습 고스란히 조각·그림에 담아

'우리의 모든 것은 미래의 유물로 남는다'는 주제로 작업하는 이정기 작가.

'우리의 모든 것은 미래의 유물로 남는다.'

조각, 설치,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장르적 실험을 멈추지 않는 이정기 작가(44)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주제다.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 '제 19회 하정웅청년작가가 초대전 빛 2019'(8월25일)전에서 만나는 그의 조각상은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날 것'의 모습이 미래에는 역사를 기억하는 '유물'로 남겨질 거라는 걸 잘 보여준다.

새 생명을 잉태한 여성, 안전모를 쓴 현장 엔지니어, 다부진 표정의 청년, 바닥에 엎드린 여자아이, 그리고 세월의 풍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노년의 남자와 여자까지 그의 손에서 빚어진 조각상과 그림들은 시대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광주미술상, 신세계미술제 대상에 이어 올해 하정웅천년작가에 선정된 이 작가는 지난해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첫 입주작가로 선정돼 부지런히 작업을 해왔다.

"현재의 생각과 판단, 우리의 결정이 미래에 어떻게 발현되고, 유물로 남는 지 관심을 가져왔어요. 유물은 과거, 현재, 미래의 연결고리죠.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미래에 어떻게 남을 것인지 모를 일입니다. 급속한 변화와 예측하기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삶을 한번쯤 돌아보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작품 소재는 얼핏 대리석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플라스틱과 유리섬유, FRP 등으로 작업했다. 오래된 유물이 '발굴'된 것처럼 보여지도록 거칠게 마감을 하고, 채색으로 대리석 느낌을 표현했다. 진짜가 아닌, '페이크'(fake·가짜)는 고정관념을 깨고 사고의 전환을 부여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또 텅빈 조각상의 뒷모습을 방치하듯 노출시켜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그의 작품 속 소재는 가족과 동료 등 주변인물들이다. 둘째 아이를 임신한 아내, 한국전쟁, IMF 등 한국근현대사의 산 증인인 부모, 외국 건설 현장에 나가있는 지인 등이다. 인상적인 작품은 시리아 난민 아일란 쿠르디의 모습을 담은 '바다를 건너서'다. 조각 작업에서 실제 크기로 석고를 이용해 본을 뜨는 그는 큰딸을 본 떠 이 작품을 만들었다.

"인류애, 난민 이런 거창한 의미보다도 이 사진을 봤을 때 '아빠'로서 너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충격이 컸어요. 이 아이의 모습을 통해 우리 시대의 아픔을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전남대에서 회화를 전공한 그는 "작가가 경쟁력이 있으려면 주제 의식과 함께 나만의 아이덴티티가 담긴 오브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뒤틀리고 끊어지고 조각난 거울을 소재로 활용해 '우리 모습을 직시'하는 '깨진 거울 작업'을 진행했다.

'시대의 유물' 작업은 2015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거울 작업이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소재가 주는 강렬함에 눌려 작품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좀처럼 관람객들에게 다가가지 못한 게 아닌가 고민하던 중, 그해 광주 원로·중진 작가들이 수여하는 광주미술상을 수상한 게 계기가 됐다.

"선배님들이 주시는 상이니 무게감, 책임감이 생겼죠. 나의 작품에 대해 나의 예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감동을 시키는 것, 마음을 움직이는 것에 대한 고민이 깊었고 바닥에 모든 걸 내려놓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했고 작가의 숨겨놓은 의도를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나의 의도 자체를 '아예' 드러내 놓고 싶다고 생각했죠."

포장하지 않고, 마음에서 시키는 대로 시대의 흐름을 담아내겠다는 그의 '유물' 작업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문의 062-613-5390.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 전, 이원경·임봉호·신준민 작품 전시

광주시립미술관 하정웅미술관에서 열리는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 2019'전(8월25일까지)에는 광주의 이정기 작가를 비롯해 올해 선정 작가인 이원경(대전), 임봉호(부산), 신준민(대구) 작가의 작품이 전시중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이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한 이 기획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45세 이하 작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오는 8월31일까지 열리는 올해 전시에도 흥미로운 작품들이 대거 출품됐다. 미술관 입구와 1전시실에 걸린 이원경 작가의 작품은 제작 방식이 궁금해지는 설치물이다. 이 작가는 알루미늄을 뜨개질해 작품을 만드는데 제작 과정을 담은 동영상을 본 후 관람하면 더 흥미롭다. 또 전시실을 가득 메운 모호한 형상의 구조물은 다양한 상상력을 불러 일으킨다.

임봉호 작가의 영상 작품은 유쾌하다. 2분 30초 분량의 '유효 분량'은 '노력', '청춘', '꿈', 등이 적힌 카드게임을 진행하는 딜러와 플레이어의 모습을 담아낸 작품이며 수십개의 작은 모니터로 구성된 '네 사전에는 없다'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에서 특정 부분을 지우거나 더해 전혀 다른 어휘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흥미롭다. 등장하는 단어는 끝말 잇기처럼 구성돼 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 소멸되고 생성 반복하며 변화하는 공간과 환경에 관심을 가져온 신준민 작가는 지난 몇 년 동안 관심을 가져온 동물원과 야구장 등을 관찰한 기록을 회화로 보여준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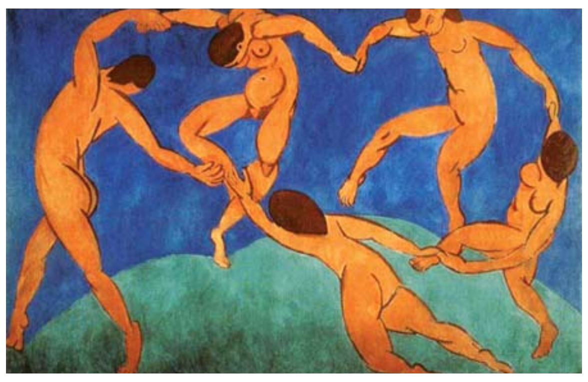
'인문지행' 마티스·피카소 작품 비교 감상 21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

(사)인문지행이 진행하는 문화예술기획 7월 행사가 오는 21일 오후 2시~4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에르미타주 박물관의 명화들을 시민들과 함께 감상하는 다섯 번째 시간으로 현대 미술을 대표하는 앙리 마티스와 파블로 피카소를 중심으로 인상파 화가 카미유 피사로, 기계주의를 대표하는 페르낭 레제 등의 작품을 만난다.

감상 작품은 마티스의 '붉은 방'(1908), '춤'(1910·사진)과 피카소의 '압생트를 마시는 여인'(1901), '개와 소년'(1905) 레제의 '부채를 들고 있는 여인'(1908), 피사로의 '퐁뜨와즈의 공원'(1987) 등이다.

기획과 진행은 '인문지행'의 대표 심옥숙 박사가 맡고 있으며, 참가비는 없다. 문의 010-5205-5668, 062-229-0687. /김미은 기자 mekim@



'생활 속 예술'

'한 집 한 그림:아트마켓' 전, 31일까지 문예회관 갤러리

'우리집에 그림 한 점 거는 건 어떨까?'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트마켓전을 진행한다.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아트 마켓은 작가와 시민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미술품 소장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시작됐다. 올해 행사 '한 집 한 그림:아트마켓' 전은 오는 31일까지 회관 내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개관 이후 지금까지 기획전시에 참여한 작가 및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견·신진작가 110명이 참여해 회화, 조각, 사진, 도자, 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36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지난해 150여점을 선보였던 것보다 작품 수가 대폭 늘어나 작품 선택권이 그만큼 넓어졌다.

또 지난해 1~2호 크기의 작품을 10만원 균일가에 판매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최대 10호 크기까지 전시하고 있으며 최고가는 50만원이다.

이번 전시는 특정인들만을 위한 예술이 아닌 예술에 관심을 갖는 모든 이들을 위한 자리로 '미술의 대중화', '생활 속 예술'을 구현하는 기획이기도 하다. 관람시간 오전 10시 30분~오후 7시30분. 문의 062-613-835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ofar 누가? 어디서?

30일 '제5회 소파 사운즈 광주' 라인업 당일 공개

누가 나오는지, 어디서 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비밀 공연'.

세계 438개 도시가 함께 하는 공연 프로젝트 '제5회 소파 사운즈 광주'가 오는 30일 오후 8시 개최된다. 이날의 주제는 'Mood indigo Summer Night'.

'소파 사운즈'는 '방에서 듣는 음악'(Songs From A Room)이란 뜻으로, 지난 2009년 런던의 한 작은 방에서 시작해 현재 전 세계 438개 도시에서 열리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4년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김포, 부산, 대구에서 진행돼 왔으며 지난해 9월엔 광주에서 첫 공연을 가졌다.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진행된 당시 공연은 정밀아와 밴드 더스키톤이 출연했다.

이번 공연은 2팀의 아티스트가 참여할 예정이며, 정확한 라인업은 공연 당일 공개된다.

참가 신청은 24일까지 웹사이트(forms.gle/M3Swb38YSCWZ6cDk9)에서 할 수 있다. 참가 관객은 추첨을 통해 선발되며, 발송된 26일 이메일로 발송되는 초대장에 공연 장소가 적혀 있다. 전석 1만5000원. 문의는 이메일(gwangju@sofarsounds.com)로 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